

김보라 경기도의원, 기업 중심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 한경대학교 초청 안성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이성재



인쇄

글꼴 + -



[경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경기도는 한경대학교 스마트 물류기술 연구센터에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을 초청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라 도의원, 기업 CEO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연구개발 사업이 현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김보라 도의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을 활용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모델이다.

경기도는 지난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년간 20개 대학 연구센터와 1,532개 기업체 총 5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결과로 540건의 제품 개발과 특허출원 806건, 2,478건의 논문 발표, 1,449명의 인력 양성이 이뤄졌으며, 올해도 한경대학교 스마트 물류기술 연구센터 등 13개 대학 연구센터와 92개 중소기업에 45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gado333@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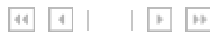
▶ 이성재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환경일보(http://www.h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0개

이름	조회	공감	날짜
----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